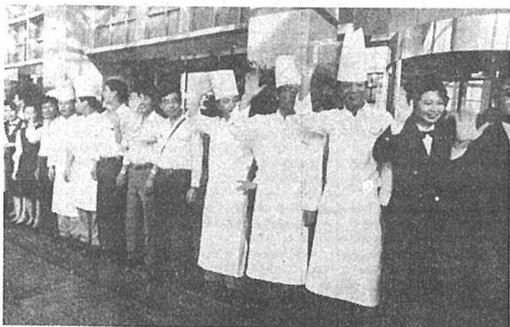


전민족적 단일대오 형성을 위하여



이 찬 행 (국민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마침)

지난 9월 10일과 10월 11, 2차에 걸쳐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와 12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3차회담의 전망 및 그것이 미칠 파장을 놓고 관련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들 국가의 경제협력에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 구상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익한 조건을 형성하려는 것이라, 남북관계에서는 남한의 이성이 더 확보에 있다.

이어서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정책구상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방방오한 교차수단 인종과 통일과정과 경제협력 「두개의 한국정책」 관련과 더 나아가 이두 자본주의적 방식으로의 개혁(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정책)까지를 의미한다.

통일 운동에 부는 바람
남북 고위급 회담
글심는 차례

1.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본 현대적 북한의 통일정책
- 2-1. 남북고위급 회담의 전개와 배경(상)
- 2-2. 남북고위급 회담의 전개와 배경(하)
3. 남북고위급회담 전진을 위한 선결조건
4. 남북고위급회담의 평가와 전망

(보론)국내외의 경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제가 만난들 아니라, 북한은 남측이 불가침선언의 함의로써 주장을 무력화시키므로 사실상 남한민 인민차원의 통일운동 등을 정부의 장구단일화 논리에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2차 고위급회담에서 그러한 상이한 남의 전일실체의 존재나 현재의 남북분단 상태를 현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남측 주장의 상당부분을 수

참.다.운.학.술.풍.토.정.착.의.길

⑤ 올바른 학술운동 정착을 위하여

우리는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교육적 경험을 거쳐왔다. 거기에는 지혜 보수태의 학

해 사회의 불만요소를 창출하는 위험집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일까? 첫째, 사회현실과 분리될 수 없는 학문으로 우리사회의 강을 표출해내는 현실 직선성을 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일으켜세우는

민족자주교육 위상이 학원내 정착돼야

대학사회도 바로 이런 교육 풍토의 조류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 본리적 현상이 극대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맞는 교육의 위상을 정립하고 현실적 조건을 철저히 지켜주어야 그 해결

생관을 견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운동이 되어야 하며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우

민족 내부의 문제 당사자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남한내 민민진영 반통일 세력에 효과적 대응 중요

표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에서이다.

한당국의 고위급-개방화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한 당국을 대외로 끌어들이

회담장점 통해 본 남북관계 전망

유하는 유익한 자제를 보았다. 게다가 1차회담에 제시한 불가침선언의 내용중 외교무력중립

상기한다면, 적어도 91년 뮌헨 퍼트리트 훈연은 전연한 정

민족 내부의 문제 당사자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남한당국과 미국은 역사적으로 「민족분쟁의 국제화,를 일

90년대 통일정책의 기조로 발표된 「조국통일 5개항」이 제4항인 「통일을 위한 대화

그런데 2차 고위급회담에서 그러한 상이한 남의 전일실체의 존재나 현재의 남북분단 상태를 현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남측 주장의 상당부분을 수

마지막으로 현재 회담정지는 「유엔가입문제」는 남측이 유엔가입을 통한 한

이제라도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회담정지는 「유엔가입문제」는 남측이 유엔가입을 통한 한

올바른 학술운동 정착을 위하여

이제라도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회담정지는 「유엔가입문제」는 남측이 유엔가입을 통한 한

이제라도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회담정지는 「유엔가입문제」는 남측이 유엔가입을 통한 한

이제라도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회담정지는 「유엔가입문제」는 남측이 유엔가입을 통한 한

TOEIC 600 전략시리즈 전6권

대외영문학, 취직시험, 유학시험, 각종 고시준비는 이것으로 끝!

- 1권 경향과 공략법
- 2권 LISTENING 전략
- 3권 문법/STRUCTURE 전략
- 4권 WORD POWER 전략
- 5권 READING 전략
- 6권 IDIOM 전략

비즈니스와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는 재미있는 영문 학습교재!

이 책 한 권이면 **영문신문**을 읽게 읽을 수 있다!

나의 영어실력은? (Test Your English)

영어신문-잡지를 재미있게 읽는 법

비즈니스 영문은 이렇게 해라!

You Know What? (上·下권)

교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영문**

미국영문 이어서 재미있다

영어시험에 강해지는 책 (전2권)

(주)시사영어사

문의 : (대표) 534-6767, 274-0509 (점주) 275-5258

TOEIC 800 대책시리즈 전6권

취직과 승진을 보장하는 '90년형 최신권!

- 1권 경향과 공략법
- 2권 LISTENING 대책
- 3권 문법/STRUCTURE 대책
- 4권 WORD POWER 대책
- 5권 READING 대책
- 6권 IDIOM 대책

이 책

변혁이론속에 문화예술의 지위 확정한 실천지향의 지침서



이들중 최근 발간된 『페데 스토 이카의 약화코리』(민음, 1990)는 특히 변혁이론속에서 문화·예술이 기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것을 유효하게 도입시켜 독특한 구성·전형을 가진 출판물이라는 데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모두 1·2 두권으로 나누어진 이 책은 1권에서는 노동계급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론과 변혁적 유토피, 사회적 유토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권에서는 현시화물 판별의 주 대상으로 한 자본주의·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을 주내용으로 서술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책의 구성에서 모든 분류와 갈래가 기존 이론서적의 경향을 담보하지 않고(물론 과거는 아니다) 철저한 필자가 말하는 당시의 정적의 새로운 판별에서부터 오직 변혁·실천에 초점을 두어 쓰여졌다는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변혁이론에서 문예 창작자가 정립이 내깃은 긴장관이란 필자의 탁월한 문필력이 가능한 거침없고 설득력 있는 문장을 고도의 변혁이론을 오히려 하려나 들기좋은 언설술까지 의외로 훌륭하고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다. 이같은 문화·예술과 변혁이론의 관계를 잘 그스스로는 서론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변혁운동의 무기로 되면서 문화·예술은 단순히 이념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파하면서 이념에 구체성을 부여, 실천과 맞닿는 역할을 이론에 대해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 책 『페데~』는 변혁이론의 개성, 혹은 그들의 당파성을 전지한 실천적 활동자들이 실천과 이론에서 이같은 본격적인 변혁운동의 신상에 이르지 못한 활동들을 문화·예술이 이를 뒷받침하여서 사회 관계도에 오르내리는 『무기강화』의 첫시작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책이 내용면에서 추후 해명되어야 할 몇가지 의문 또한 없지않은 필자나 독자 모두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철저히 『변혁-반독립PDR(민중민주주의 혁명)』 변혁이론을 표방하고, 이같은 기초에서 서술되고 있는 이 책은 필자의 자신에 관한 난호한 어조의 서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당성을 겨냥한 이론을 위한 이론에 매를, 무기의 날뿔방향이 잘못 들려있거나 혹은 신랄한 무기가 되어야 하는데 부러져버린 직감은 자제적 함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변혁이론에서 독자 대상을 변혁적세계관으로 전향시키고 파악하고 있는 무장투쟁이나 긴장 관계가 할 경우 무기로 쓰여지는 해악이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변혁이론에 있어 문화·예술이 정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심화시킨 책이라는 데에는 반론이 없을 듯 하다.

(김창섭 논설위원)



박성석

부터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다수대중에 대한 확위로 귀결되고, 정치적·사회적 경제적인 재분배가 여기에서 연인함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대중주의의 열렬한 추수는 이미 1950년 후반에 학생시도자로서 수도만 상공에서 대대적으로서 그 단면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혁명을 도모하기 위해 1958년에 이미 비밀혁명 세포 조직을 구성했으며, 이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부의 평등한 분배와 균등한 교육·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파른 정의와 행동·상호존중을 입대한 세계인들간의 협력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와 민주주의·민중주의의 추방을, 계급주의와 대항하게 했다.

초기단계로서 혁명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당시 리비아에 주둔했던 미국 및 영국군 기지와 오랫동안 지배세력이 조공을 구상했으며, 이것은



자유와 사자 무암마르 가다피

승고한 이상과 인류를 위한 헌신과 신사회의 건설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의 대중주의적 정치철학은 70년대 중반에 저술된 『그린북』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적 통치기구를 거부하고 대중권력의 개념을 도입, 인간의 가치와 전통, 원칙 등에 기초한 신사회 창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는 혁명후 즉각 노동법률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을 추구시켰는데, 이는 가다피가 위한 최초의 정책주의적 대중주의의 노선에 대한 부응이었다.

그의 자유와 해방운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필연적으로 그 일종의 이해와 상충하게 되었으며, 계급주의의 위기의식의 발로로 인해 파격적인 1986년 4월15일에 무장투쟁 무로 나트르카의 중공화국의 연 함정으로서 가다피 자신의 양녀와 수 많은 리비아대중

바로 그 과학기술은 시시지자 인간의 목숨을 쏘고 있다. 우선 최근에 신문 마다 거론되는 '파탄'에 지는 지구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자. 만약 보기에 '후고 베르노 사립학교'에 새 층을 사람이 저절로 없어질 것을 기뻐하는 철부지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보봉 재량이 아니다.

온실효과



보도에 의하면 지난 30년 사이에 서울의 평균 기온은 1.1도가 높았고, 전국적으로도 0.6도 높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음 세기말 5.5도 높이는 지구의 대기 온도는 2.5도 내지 5.5도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지구의 '온실 효과' 현상은 다름아닌 이산화탄소 때문이고 그것은 자동차가 많이되고 공장이 많이일수록 더욱 더 가속적으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이 때문에 오존층 파괴의 가장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를 연산하는 화석연료이다.

『빨간루 마이 푸른 바다로 버리게 된다』는 셈이다. 시베리아 지방에는 곳에서만 일기학적 동영 생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북극 지방에는 오히려 사막이 수도 버리게 된다. 게다가 북극과 남극을 덮고 있는 얼음이 녹아내리면 전 세계의 바다 수면이 60미터를 높여지면 세계의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해수 도시로 바뀔 수 있다.

지구는 그것일고도 이만 지어 어려울 환경 파괴의 위험 속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 냉각고에 쓰이는 프레온 가스만해도, 지구를 둘러싸서 우주의 태양으로부터의 해로운 복사선을 막아 주던 오존층은 자꾸 없어져 가고있다. 이미 지구들에서는 오존층이 구멍이 크게 뚫려서 무서운 우주 방사선이 인간의 피부를 직접 자극하여 많은 피부암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모두 인간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와 항공기와 비행기, 우주선, 인공위성의 발달로, 소위 경제 발전이란 것이 진행될수록 지구의 수명은 짧아진다. 지구 그 자체의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지구 위생의 수명이 짧아진다.

이 역설은 다름아닌 해로운 단 하나의 길이 있을 때이다. 인간 도대체, 특히 잘사는 사람 일수록 절약하는 건물이 왜 모르고 없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본질을 이해한 때만 우리는 건물을 짓는다는 생활이 왜 필요하냐고 질문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학에 대한 교양이 오늘날의 지식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박성래 교수 (사학파·과학사)

학습정보

앞 터

■금개토론회
용인캠퍼스 「한겨레사랑도림」은 금번에는 국제경제 속에서 올바른 한반도의 상황을 인식하고 환경친화적 북방정책의도를 견제하며, 올바른 통일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한겨레 사랑」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술토론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하여 용인캠퍼스 「민중사상 연구회」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강령의
지난 9월27일 개소한 동구, 백산대학원원은 한겨레의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신유럽질서와 통일방향을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회를 연다.

■인사-크리코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전 숭례대인대학 교수)
△일시-11월30일(금) 오전 11시
△장소-용인캠퍼스 교양학관 301호

■의학연 제2기 학술심포지엄
△11월29일(목) 오전10시~오후6시
1. 카르시기 정착방법론 논 의과정-정세현·박영환·김영환
2.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 이론의 발전과정-원문분과
3. 나카라파 혁명과정분석: 국제분과1
△11월30일(금) 오후1시~6시
1. 레닌의 성장전환론:국제분과2
2. 광우항쟁지부의 정치전환적 성격:정세현·원문분과
△장소:대학원건물(자세한 내용은 추후공고)
소주회:외대대학원 학습운동연합

생활속에서

햇 글

■성교육교과서(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여성국 민가)
현대의 아이들이 물질문명과 기계문명에 노출되어 올바른 성적표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태까지 학교교육에서 성 교육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 수모를 극히 미약한 상태로 불과했다.

이런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교조 여성국에서는 일련의 노력을 우리사회에 맞게 번역하여 지향하는 기초 자료집에 이 이 내용을 활판 보충하여 이 책을 출간하였다.

내용에 알기 쉽고 재미있게 되어 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을 알고자 하는 모든이에게 올바른 지침서가 될 것이다.

(동지퍼블, 4천원)

우리의목표

1990 I2

찾아본 사람
교사들의 심부름꾼이고 싶은 교감 이상선

체질사레
내가 떠내보낸 아이

교권상남
강강상남
생활경제
학생체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십니까?
연말정산 어떻게 계산되나?

교육문화
교육출판의 현실과 전망
전망의 문화, 해방의 문화
교육현실과 그 반영으로서의 교육영화

기획연재
해방초기 학생운동의 갈등과 좌절
한국민중의 인권현실
북한의 혼례·상례·제례

아이들의 삶
봉화 신골에 사는 승학이

학부모이야기
「학교노래」가 참된 「아이들의 노래」였으면
서서 그대타기를 배워온 아이
유치원에서 부터 시작되는 성차별교육

책속의 부록
학기말에 해보는 새로운 수업
우리정사가 담긴 연하장, 카드만들기
새로운 어린이책 10권
방학중 아이들에게 권할만한 책
학급문집 제작 사례

통권 제10호 값4,000원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86-16 삼미빌딩 201호 전화: 338-8273 편번 338-8274-5 영입 FAX: 335-4922

「교원공개임용고시제」 실시의 배경과 문제점

교원공개제-국사입사제 차별철폐연대, 교육정책연대

특집

한국 교원인사문제의 구조와 현실

인사비밀, 교사점수 이렇게 매겨진다

교사를 위하여는 '점수'는, 인사점수를 둘러싼 비리의 현실

국공립 교원인사의 구조와 현실

교사 채용성 격차없는 한계 승진 전보제도

신분보장 급선무인 사립교원 인사문제

사립학교의 인사정책, 과연 존재하는가

전남지역 인사제도개선투쟁 사례

구조적으로 타당한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교원들의 문제제기

요지경 속 대입전야, 교육은 무너지는가

입시공화국의 대입전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업이윤추구수단 산업체부설학교를 고발한다

「결전」 어린 학생들, 노동학생들이 시달리고있다

섬유재벌의 각축장, 교복시장의 검은 뒷거래

교복부품, 문로부 등 뒤에 숨은 섬유 재벌들의 치밀한 공작 보고서

본교 여학생위원회 및 총여학생회 사업평가

내실있는 사업으로 그 입지를 다져간다

심층분석

사회적변천 속 교육과 격리될 수 없는 여성문제가 대학사회 내에서도 노정되고 있음을 인식, 이러한 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며 아울러 학생들의 목적을 담당하고 있는 본교 사업정책을 여학생위원회 및 여학생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 1988년 총학생회와의 부서로 특화되어 현재 3대제를 갖추고 있는 여학생위원회와 같은 해에 건설되어 2대체인 총여학생회는 파인더 등 기중단위 강화와 이들을 중앙과 연결해 줄 각 단위의 학생부장 및 중앙의 사업을 이끌고 갈 주축부 등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실재23인 확산을 담보해내지 못했다.

올 90년도에 전개된 여학생자치자율의 사업을 성과로 보면, 서울캠퍼스 여학생위원회의 경우 올해의 사업목표를 동·서지역을 제외한 타캠퍼스 등 외부 파인더의 강화와 여학생운동을 중점으로 이룩한 중앙단위 사업추진 발판에 중점을 두면서, 그간의 사업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의 지속성·일관성·대응성을 확보했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원칙하에 지난 5월에 개최된 '제2회 여학생대중캠프'를 평가하면, 행사진행에 있어 내용적으론 '공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여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여학생들의 참여를 추후해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었다.

한편, 여학생운동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여학생들의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창간된 여문(女門)이 서울-용인 두 캠퍼스의 지역적 차이로 인해 발생된 여러 내용들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분간되어 서울캠퍼스 여학생위원회의 자체적으로 '의의'를 발

간하게 되었다. '의의'로의 분리는 서울캠퍼스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 공간 마련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현재 사업을 계속해서 이룩할 주체가 부족하여 여학생운동과 신평대체와의 발전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학기에는 원할지 못한 사업들을 반영하며 화계방학중에 재정지원에 들어갔다. 여학생위원회의 자체의 체계와 불명확했던 주제들을 확실히 재구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확산 이루어져 실무주체 발굴과 정례화된 모임이 필요

여 문양대 여학생부 주축로 '여성학교'를 개최했으며 여학생주체들을 새롭게 단장시켰다. 이것을 기반으로 2학기에는 '학이활동부'를 신설하여 학이활동부 인사공부를 위해 사외의 상담도 상담, 대외교류 사업들을 검토, 각 단위 및 여학생부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학이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 파인더의 강화와 여학생운동을 중점으로 이룩한 중앙단위 사업추진 발판에 중점을 두면서, 그간의 사업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의 지속성·일관성·대응성을 확보했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원칙하에 지난 5월에 개최된 '제2회 여학생대중캠프'를 평가하면, 행사진행에 있어 내용적으론 '공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여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여학생들의 참여를 추후해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었다.

한편, 여학생운동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여학생들의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창간된 여문(女門)이 서울-용인 두 캠퍼스의 지역적 차이로 인해 발생된 여러 내용들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분간되어 서울캠퍼스 여학생위원회의 자체적으로 '의의'를 발

간하게 되었다. '의의'로의 분리는 서울캠퍼스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 공간 마련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현재 사업을 계속해서 이룩할 주체가 부족하여 여학생운동과 신평대체와의 발전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했으며 현재는 각 과여학생부주체들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용인캠퍼스 총여학생회의 경우는 신입생을 위한 제2대총여학생회 해오를지를 개최하였는데, 행사준비과정에서 여학생들 스스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자체에 참여할 학생들이 상당수였으며, 행사후 행사기록을 정리하여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다. 다음으로 지난 5월에 있었던 '제1회 학생이슈 콘서트'를

내고 각과별 단체 여학생부의 체계를 확립하기위해 노력하였는데 '특히 학이위원회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한 성남지역 사노사업의 경우 여학생들의 사회봉사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적인 부합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양학대 여학생부에서는 바자회를 개최, 그 수익금으로 단체 여학생회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했으며, 중앙학대의 경우 '미모교인' 등 여학생들이 관심있는 동아리, 동아리가 설립된 것에도, 동아리의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사외교류는 여학생주체들 자체가 그 외연 확장을 지니지 않음에 비추어 현재 여학생운동의 발전은 실로 중점적인 평가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학생운동을 학원내에서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키고 대학내부의 정통한 인식을 타파해 내지 못한다면 여학생운동의 기동력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학원내에 있는 여학생들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굳건한 여학생주체들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상의 여학생자치기구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간담회'의 강화와 중앙집행위원회의 체계이다. 서울캠퍼스는 현재 동·서지역이 단위 여학생부 활동을 활발한 분사체·정리대·상담대·법대 4 개 단위로 여학생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인캠퍼스도 동·서지역을 제외한 사외 파인더·지역파인더 등 나머지 단위에서는 여학생부 조직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성을 지니며 일정한 성과를 획득해 낼 수 있는 구조화되지 못한 점이다. 강연회 등이 학원내에서 호응을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학원내에서는 분담제를 가진 여학생회 전체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2회 총여학생회의 주요사업목표에 대해 총여학생회장 조준미(서양·여)는 "지난 2대 총여학생회는 중추적으로 이끌어야 할 핵심인사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주요사업이었다. 이번 총여학생회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재성신해

하는 가운데 해결된 것이다. 본교 여학생자치기구들은 88년, 89년, 90년을 지나오면서 그 입지를 다져왔으며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제 91년과 각 캠퍼스별 여학생자치기구들이 전격해할 부분은 서울-용인 각 지역에서의 맞는 그리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사업과 목표들을 설정하여 단체 및 과여학생부를 강화,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학생자치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여학생운동 자체가 87년 민주

화대투쟁이후 강도있게 진행되었던 점과 여학생운동 자체가 그 외연 확장을 지니지 않음에 비추어 현재 여학생운동의 발전은 실로 중점적인 평가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학생운동을 학원내에서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키고 대학내부의 정통한 인식을 타파해 내지 못한다면 여학생운동의 기동력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학원내에 있는 여학생들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굳건한 여학생주체들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상의 90년도 각 캠퍼스 여학생자치기구의 평가를 마치고 나서 91년도 여학생운동의 발전된 면모를 기대해 본다. (신사경 기자)

이상의 여학생자치기구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간담회'의 강화와 중앙집행위원회의 체계이다. 서울캠퍼스는 현재 동·서지역이 단위 여학생부 활동을 활발한 분사체·정리대·상담대·법대 4 개 단위로 여학생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인캠퍼스도 동·서지역을 제외한 사외 파인더·지역파인더 등 나머지 단위에서는 여학생부 조직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성을 지니며 일정한 성과를 획득해 낼 수 있는 구조화되지 못한 점이다. 강연회 등이 학원내에서 호응을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학원내에서는 분담제를 가진 여학생회 전체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2회 총여학생회의 주요사업목표에 대해 총여학생회장 조준미(서양·여)는 "지난 2대 총여학생회는 중추적으로 이끌어야 할 핵심인사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주요사업이었다. 이번 총여학생회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재성신해

하는 가운데 해결된 것이다. 본교 여학생자치기구들은 88년, 89년, 90년을 지나오면서 그 입지를 다져왔으며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제 91년과 각 캠퍼스별 여학생자치기구들이 전격해할 부분은 서울-용인 각 지역에서의 맞는 그리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사업과 목표들을 설정하여 단체 및 과여학생부를 강화,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학생자치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여학생운동 자체가 87년 민주

화대투쟁이후 강도있게 진행되었던 점과 여학생운동 자체가 그 외연 확장을 지니지 않음에 비추어 현재 여학생운동의 발전은 실로 중점적인 평가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학생운동을 학원내에서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키고 대학내부의 정통한 인식을 타파해 내지 못한다면 여학생운동의 기동력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학원내에 있는 여학생들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굳건한 여학생주체들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상의 90년도 각 캠퍼스 여학생자치기구의 평가를 마치고 나서 91년도 여학생운동의 발전된 면모를 기대해 본다. (신사경 기자)



서울캠퍼스 제25대 총학생회장 정원택

△3차기총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 우선 기쁩니다. 그렇지만 표현하러는 과정에서 학생이라는 범위, 확대발전의 범위를 생각하며 많은 토론에 의해 선거과정과정에 임하여 왔는데 인내와 학원으로 표현된 감도 있습니다. △이런 선거에서 '자주 학생회 건설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자주 학생회란? - 학생회란 무엇인가? 학생이 배제된 것이 없고 사업

"통일단결 총학생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을 입안, 집행, 결정, 평가, 전담하는 모든 과정을 학우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즉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 '자주 학생회'란 공약을 표명했다고 생각됩니다. 학생회의 목표는 자주성을 지향하여 과우대중 학원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기 위한 것으로 학우들 자신이 소유해 있는 과·단위 학원원단위로 단결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5대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지향하는 바와 요구사항이 토론을 통해 집약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3차기 총학생회의 총학생회를 건설하자는 약속을 실천할 것인가? - 25대 총학생회는 '통일단결 총학생회'의 위상을 밝히는데는 공중을 형성시키며,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학생회도 통일단결 선거 행위의 자주성 강화와 더 나아가 자주·민주·인권의 정취를 이룩하도록 정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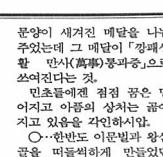
△25대 통일단결 총학생회의 위상을 밝히는데는 공중을 형성시키며,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학생회도 통일단결 선거 행위의 자주성 강화와 더 나아가 자주·민주·인권의 정취를 이룩하도록 정화하겠습니다.

"학원자주의 새시대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3차기총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과 선거 결과에 대한 말한단? - 항상 5천 학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표를 많이 받았던에도 불구하고 이룬 것만으로도 학원내에 대한 신뢰를 키고 대학내부의 정통한 인식을 타파해 내지 못한다면 여학생운동의 기동력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학원내에 있는 여학생들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굳건한 여학생주체들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상의 90년도 각 캠퍼스 여학생자치기구의 평가를 마치고 나서 91년도 여학생운동의 발전된 면모를 기대해 본다. (신사경 기자)

12대 총학생회 학우들의 자주적 참여·민주적 투의 속에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학생회가 이루어지도록 학원의 기초조직인 과학생회를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3차기 총학생회의 1년차 사업의 전진 평가한단? - 1년차 총학생회의 1년차 사업·과별 학생회를 내외의 동부와 교류로 인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으나 학우들의 자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성과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단결·총학생회에서 대투쟁의 단결후보 출마는 그만큼 학우들의 무관심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3차기 총학생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3차기 총학생회의 1년차 사업의 전진 평가한단? - 1년차 총학생회의 1년차 사업·과별 학생회를 내외의 동부와 교류로 인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으나 학우들의 자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성과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단결·총학생회에서 대투쟁의 단결후보 출마는 그만큼 학우들의 무관심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3차기 총학생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용인캠퍼스 제12대 총학생회장 이국형

△3차기 총학생회의 1년차 사업의 전진 평가한단? - 1년차 총학생회의 1년차 사업·과별 학생회를 내외의 동부와 교류로 인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으나 학우들의 자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성과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단결·총학생회에서 대투쟁의 단결후보 출마는 그만큼 학우들의 무관심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3차기 총학생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비둘기협판

Advertisement for '비둘기협판' (Pigeon Court) featuring various services like '신문' (Newspaper), '광고' (Advertising), '대판' (Large Print), '미필여고' (Non-compulsory high school), and '광고선점' (Advertising spots).

